‘워터파크’ 변신한 사찰 …천진불 물놀이 삼매경

〔현장〕 서울 화계사 여름불교학교



화계사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어린이가 법당 앞마당에 설치된 에어바운스 슬라이드를 타며 무더위도 잊은 채 즐거워하고 있다.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부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적으로 피서가 한창인 휴가철,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화계사 법당에 쟁반 위를 구르는 옥구슬 같은 아이들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00여 명의 천진불이 내뱉는 맑고 고운 함성은 활짝 열린 법당문을 넘어 경내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바로 7월 30일부터 1박2일간 열린 화계사 여름불교학교 ‘나 부처님 되지 말입니다!’ 현장이다.

첫날 오전, 아이들은 입재식에 앞서 사찰 기본 예절을 배웠다. 합장인사부터 절하는 법 등 도량 내에서 지켜야할 예절을 위해 자세를 가다듬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이법회에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사찰이 낯선 몇몇 아이들은 어색한지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이내 옆 친구들을 따라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합장하고, 절을 하며 하나씩 예절을 배워나갔다. 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박수를 1번 친 뒤에는 ‘옴’을, 3번 친 뒤에는 ‘부처님’을 외치기로 했다.

입재식에서 아이들은 1박2일간 여름불교학교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그러자 지도법사 청심 스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즐겁고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다”며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조별 담임 · 부담임 소개가 이뤄졌다. 지도교사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청년불자들이 맡았다. 각각 선생님 소개가 진행되자 아이들은 담당 선생님을 향해 환호했다.

“와아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모회가 마련한 점심공양 이후에는 물놀이에 앞서 땀을 내는 미니 체육대회가 열렸다.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날씨였지만 동심(童心)은 좀체 쉴 줄을 몰랐다. 아이들은 포대자루에 두 다리를 집어넣고 깡충깡충 뛰다 넘어져도 마냥 즐거운 듯 해맑게 웃었다. 대형 공굴리기를 하다 지도교사가 미끄러졌을 때는 합이라도 맞춘 것처럼 다 함께 자지러졌다.

흠뻑 땀을 흘린 아이들의 시선이 법당 앞마당에 쏠렸다. 물놀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풀장에 시원한 물이 한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선생님! 이제 물놀이해도 돼요?”

아이들은 마치 어미새에게 먹이를 달라는 아기새들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지도교사를 바라봤다. 그리곤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쏜살같이 풀장으로

초등생 100명 1박 2일 캠프
물놀이 · 체육대회 등 체험 다채
여러 신행단체서 후원 줄이어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큰 효과

달려갔다. 슬라이드와 풀장, 물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잊은 채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들었다. 한참을 물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이 갑자기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궁금했는지 지도교사가 다가가자 아이들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퍼부었다. 화들짝 놀란 지도교사 역시 반격을 하며 물싸움 대결구도가 펼쳐졌다. 하지만 승리는 수적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백서이(초2) 양은 “절에는 자주 오는데 여름캠프는 처음이다. 수영을 배워서 물놀이를 정말 좋아한다”며 “다음 여름에도 물놀이를 즐기러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초록(초4) 군은 “지난해에도 화계사에서 여름캠프를 즐겼다. 물놀이가 제일 재미있다”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김진희(23) 씨는 “초등학생 때 화계사 어린이회를 다녔다. 고등학생 때부터 지도교사로 참여했는데 아이들을 보면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꾸준히 절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물놀이 후 저녁에 예불과 108염주 만들기, 파자마파티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튿날에는 어린이포교 활동을 하는 혜장 스님의 ‘화엄놀이 DIY’와 물놀이, 산행 등이 진행됐다.

한편 화계사 여름불교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지만 이를 위해 사찰 소속 신행단체들이 마음 모아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모회를 필두로 다양한 신행단체서 후원금을 내 아이들이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신행단체 도움 덕분에 여름캠프를 훨씬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참여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상품을 주기도 한다”며 “캠프가 끝나면 지도교사들끼리 별도로 MT를 가서 친목을 다져 청년포교에도 도움을 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여름불교학교 인기비결은 지속성이다. 수십 년째 캠프를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자라서 봉사자로, 지도교사로 나오기 때문에 불심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한다”며 “특히 캠프를 통해 사찰에 처음 온 아이들은 이 인연으로 어린이법회에 나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아이들이 지도교사에게 물을 뿌리며 장난치는 모습.



외부강사 지도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아이들.



입재식에 참석한 아이들과 지도교사 단체사진.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3기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고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회장,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박청화교수, 현공풍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김창곤 8대 정통부차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9월 12일 ~ 12월 26일, 매주 월(月) 18:30 ~ 21:50 / 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9월 12일(월) 18:50 ~ 미래학특강 외
등록금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 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